

良齋 李德弘의 政治思想

李 澤 徽*

• 目 次 •

- | | |
|----------------|---------|
| 1. 서 론 | 2) 정명주의 |
| 2. 학통의 시대사적 배경 | 3) 민본주의 |
| 3. 이덕홍의 정치사상 | 4) 실용주의 |
| 1) 덕치주의 | 4. 결 어 |

1. 서 론

일반적으로 정치사상의 연구는 기존의 정치이론 또는 현존하는 정치이론을 개별적 주제로 하거나 포괄적 주제로하여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종합하여 재구성하거나 평가하는 작업을 위주로 한다. 흔히 정치사상의 연구는 정치적 신념의 체계(이를 테면 왕권신수설이나 천명론 또는 군주주권론 등등)나 이와 유사한 가설(예컨대 사회계약설이나 국가유기체설 등등)에 관한 개별적 연구 또는 비교분석적 연구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이른바 역사적으로 위대한 정치사상가 또는 정치이론가들에 관한 분석과 논평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정치사상연구의 전형적인 경향이기도 하였다. 이를 테면 조선조 정치사상분야에서만 보더라도 정도전(鄭道傳), 조광조(趙光祖), 이황(李滉), 이이(李瑊)에서 이항노(李恒老), 김평묵(金平默), 김옥균(金玉均)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시대사와의 연관 속에서 이들 위대한 사상가들에 대한 개별적 접근들이 주류를 이루는 연구유형이다.(이택휘, 1993, 136~137쪽)

그런데, 한국정치사상의 연구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조선조의 정치체제를 관리해온 이념적 원리가 유학(구체적으로는 주자학 또는 성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결국 그것이 조선조의 정치체제를 약화시키고 그 근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독선적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결국 조선조 정치체제의 기초를 형성해온 정통적 정치사상을, “진부하고

* 서울 시립대학 윤리과 교수

불건적이다”, 또는 “수구적이다”, “그래서 주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논리를 낳게 한 것이다.

세계사적 안목에서 볼 때 고대국가들을 제외한다면 세계 어느 지역에 있어서도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 5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정통성과 자율성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존속·발전해온 사례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조선조 500년은 정치사의 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5세기 이상을 존속한 조선조 정치체제의 일관된 이념적 기초는 유교정치사상이었던 것이다. 500년 이상을 생명력을 가지고 기능해온 정치사상이 수구적이고 불건적이며 따라서 그것에 관한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일방적 평가에 대하여 냉정하고 균형있는 재검토가 있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퇴계 이황의 적전(嫡傳) 학통에 따른 간재(良齋) 이덕홍(李德弘)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는, 비록 그것이 미시적(微視的) 연구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퇴계 이황의 정치사상에 관한 포괄적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조선조 정치사상에 관한 논의에 일조가 될 것이다.

왜냐 하면 한국정치사상사를 거시적(巨視的) 관점에서 논의한다면 정치체제나 정치권력의 이론적 기초로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이념이 완성된 것은 16세기에 와서 퇴계에 의해서 주자학적인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관이 확립되고 또 울곡(栗谷) 이이(李珥)에 의해서 상황론적 인식에 바탕하는 정치적 리얼리즘(realism)이 제기된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며, (박충석·유근호 공저, 1980, 제1장 참조) 따라서 퇴계의 적전으로서의 이덕홍의 정치사상을 조명하는 것은 퇴계의 정치사상의 전개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2. 학통과 시대사적 배경

간재 이덕홍은 1541년(중종36년) 경상도 영주군 장수면 구룡동(榮州郡 長壽面 九龍洞) 외택에서 태어나서 1606년(선조 29년)에 56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그는 19세에 퇴계의 문하에 들어가 30세까지 12년 동안 학문에 정진하면서 퇴계를 가까이에서 모셨다.

퇴계의 문하에는 300여인의 명사와 제자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퇴계의 학문을 독실하게 연마하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퇴계를 보필한 것은 이덕홍이었기 때문에, 퇴계는 임종 때 이덕홍에게 명해서 그의 보장서(寶藏書)를 관리하라

는 당부를 남길 정도로 이덕홍은 퇴계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제자이었다. 간재(良齋)라는 호(號)도 퇴계가 손수 지어준 것인데 “동정(動靜)의 때를 잃지 말고 오직 직심(直心)으로 행하라”는 뜻이었다.(이덕홍, 문집 상권 해제)

이덕홍은 38세(1578년 선조11년)에 조정에서 이름있는 선비 9명을 등용할 때 천거된 9현(賢) 정구(鄭述), 남치리(南致利), 성호(成浩), 김장생(金長生), 구사민(具思閔), 권응시(權應時), 김윤신(金潤身), 문몽원(文夢轅) 중에서 제4위로 선택되어 집경전참봉(集慶殿參奉)에 임용되고, 종묘서직장(宗廟署直長), 세자익위사부술(世子翊衛司副率)을 역임한 뒤 영춘현감(永春縣監)에 제수되었으며 조봉대부(朝奉大夫)가 되었다. 서거 20년 뒤엔 호종(扈從)의 공으로 위성공신(衛聖功臣)으로 훈록되어 이조 참판에 추증(追贈)되었다.(이덕홍, 문집 연보)

이덕홍은 평생동안 그의 스승 퇴계의 학문과 사상을 간직하고 실천하며 살아왔다. 관직에 나아가서도 스승으로부터 전수한 정치사상이나 경세론의 범주를 철저히 실천하며 지켜나갔다. 스승의 노선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었다. 그런데, 그의 스승 퇴계의 정치사상은 정치체제를 현실적으로 운용하는 구체적 경세론보다는 천명덕치(天命德治)의 본질론에 기초한 정치적 이상주의(political idealism)로서의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전개한 사상체계이었다.

퇴계가 급진적 변혁의 추구가 아닌 보편주의적 정향의 본질론적 지치주의의 틀 속에 온존하면서 직접적인 정치참여보다도 장기적 안목에서 지도자 교육에 치중했던 것은 퇴계가 생존했던 시대의 정치사적 조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퇴계(1501~1570)는 연산군 때 태어나서 중종, 인종, 명종, 선조 년간에 걸친 정치적 격동기를 살았던 조선조 최대의 유학자이다. 그는 4번에 걸친 사화(士禍)를 거치면서 학자 출신 정치지도자들이 집단적으로 희생되는 정치적 격동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와중에서 살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1498년 연산군 4년에 발생한 무오사화는 충군지절(忠君之節)을 중시한 김일손이 세조의 왕위찬탈을 은유적으로 비방한 김종직의 글을 사초(史草)에 실었다가 그에 연관된 사람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고, 1504년의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 윤씨 폐비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었으며, 1519년 중종14년에 일어난 기묘사화는 급진적 지치주의 정치지도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를 대거 숙청한 사건이다. 또 1545년 명종원년에는 왕위계승을 둘러싼 외척간의 갈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을사사화가 일어났는데, 이 사화에서 퇴계는 형의 죽음을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모함으로 삭탈관직당하기까지 하였다.(부남철,

1996, 116쪽)

당시의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은 유학자들의 현실 정치비판정신과 정치참여를 상당히 위축시켰고, 퇴계의 학문과 사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를 비롯한 유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유교 본래의 정치이념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차선(次善)의 책으로 재야에서 인격을 수양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는 경향이 커졌다. 이러한 연유로 도산(陶山)에 은거하며 양성한 문하에서 적전 중의 한사람이 이덕홍이었던 것이다.

이덕홍을 포함하여 조목(趙穆, 1524~1606), 김성일(金誠一, 1528~1593), 유성룡(柳成龍, 1542~1607), 정구(鄭逵, 1543~1620) 등의 퇴계의 대표적 제자들의 학문과 사상을 살펴보면, 몇가지의 사상적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김기현, 1996, 161쪽) 그것은 첫째 심학(心學)에 대한 깊은 관심, 둘째 예학(禮學)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셋째 리기심성론(理氣心性論)에 대한 논의의 종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같은 사상적 경향은 그들이 철저하게 스승 퇴계의 사상과 학문을 전수하고 있음을 뜻하며, 특히 리기심성론의 경우에는 그것이 퇴계와 기대승(奇大升, 1527~1572) 사이의 담론 속에서 상당 부분 정립된 것이긴 하지만, (김기현, 1996, 162쪽) 그외의 거의 모든 제자들이 퇴계의 이론을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완결된 사상체계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3. 이덕홍의 정치사상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스승 퇴계의 임종을 지켜볼 때까지 12년 동안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덕홍의 사상과 학문의 체계는 바로 스승 퇴계의 그것 그대로 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덕홍의 경세론을 포함한 정치사상도 퇴계의 성리학 적 본질론에 의거한 보편주의적 지치주의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그의 정치사상은 덕치주의(德治主義), 정명주의(正名主義), 민본주의(民本主義), 그리고 실용주의(實用主義)로 집약될 수 있다.

1) 덕치주의

이덕홍은 왕도정치의 근본을 덕치주의에 두고 있다. 그것은 퇴계로부터 전수한

천명덕치(天命德治)의 성리학적 지치주의의 이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군주는 모름지기 법이나 형(刑)으로 국가를 관리하고 국민을 통치하기 보다는 덕으로 해야 국민도 덕화(德化)가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국민은 법망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그래서 수치심을 모르는 국민이 되기 쉽다(民免而無耻)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덕으로 정치를 하면 그것은 마치 밤하늘에 북극성이 찬연히 빛나던 못별들은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과 같은 이치로 국민도 덕으로 교화된다(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衆星共之)는 생각인데, 여기서 덕치라 함은 인(仁)에 의한 정치와 신(信)에 의한 정치를 뜻한다.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본래의 성(性)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한 성(性)이 발동해서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정(情)이라고 본다. 퇴계는 군주를 비롯한 정치지도자에게는 인의예지 4덕목 중에서 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요순(堯舜)도 천하를 인으로 다스렸기에 국가와 국민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통합되었다고 했다. (부남철, 1996, 130쪽)

이덕홍의 덕치주의는 이러한 인정론(仁政論)을 계승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통치자는 국민에게 믿음(信)을 갖게 해야 한다(無信不立)는 신정론(信政論)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덕홍, 문집, 행재소<行在疏>) 그런데 인과 신의 정치를 행하려면 그에 앞서 통치자는 자연스럽게 인을 실천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기수양(正己克己)에 정진할 것이 요청된다. 인정(仁政)을 통해 통치자와 국민이 일체화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인으로 하는 정치를 통해 통치자와 국민이 일체화하는 것을 신민(親民)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명주의

성리학에서 정명(正名)이란 그 이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명사상에 의거하면 군주의 역할과 기능은 군주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君君臣臣父父子子) 사고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정명사상에서 최고 통치자로서의 군주가 군주답게 되는 것은 인(仁)과 신(信)에 의한 정치를 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이덕홍, 문집, 행재소)

이러한 정명사상에 따르면 정치란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바르

게 한다(政者正也)는 뜻으로 이해된다.(논어, 위정편) 이런 관점에서 성리학의 정치사상에서는 정치를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따라서 정치가 잘 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되고 정치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 정치가 이처럼 인간의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명사상은 더욱 절실한 것으로 강조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은 정치다운 정치를 가장 소망하는 것이다.

이덕홍의 정치사상에 있어서는 정치다운 정치, 즉 진정한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최고통치자로서의 군주와 그 신료가 인(仁)과 신(信)으로 행하는 정치를 추구해야 하며, 그 시작은 근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의 자신(己)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정치지도자에게 자기 자신을 규율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즉 모든 사람이 정기정심(正己正心)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치다운 정치는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정치이며, 그러한 정치를 위하여 자기를 완성하는 학문과 수련에 전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란 위성지학(爲成之學)으로부터 비롯하여 위성지학(爲成之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민지학의 방법적 원리는 중용(中庸)의 가르침대로 박학(博學), 신사(慎思), 심문(審問), 명변(明辨), 독행(篤行)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덕홍은 바로 이러한 일에 전심치지(專心致志)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스승 퇴계로부터 이어 받은 사상적 기초였다. (이덕홍, 문집, 이당규(李堂揆)가 찬(撰)한 묘갈명(墓碣銘)에서)

3) 민본주의(民本主義)

정치가 성기지학에서 출발하여 위민지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곧 위인지학이 위민정치(爲民政治)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성리학의 정치사상에서 성기(性己)는 위민(爲民)의 전제가 된다. 정명론에서의 정치다운 정치, 즉 국민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정치가 다름아닌 민본주의에서의 위민정치인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물질적인 생활수준을 인간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기할 수 있는 인륜(人倫)의 질서를 형성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국민을 향도해나가는 일이 정치이며, 이 임무가 군주를 위시한 정치지도자에게 부여된 것이다.

왜냐 하면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민(民)은 국가의 근본이므로 근본이 튼

튼해야 국가의 안녕과 발전이 도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民爲邦本 本固邦寧). 이덕홍은 이러한 위민정치를 궁행(窮行)하여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사표를 보여주었다. 임진왜란 중에 충청도의 영춘현감(永春縣監)이 제수되어 부임하니 전쟁 중에 기근이 겹쳐서 굶어죽고 병들어 죽는 자가 속출하였다. (간재<良齋>선생 행장)

이덕홍은 목민관으로서 끊임없이 경내(境內)를 순시하면서 기민(飢民)이나 유민(流民)을 구휼(救恤)하고 부황자(浮黃者)나 병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니,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도 영춘경내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원래 국민의 것인데 천명을 받아 군주는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며, 군주의 명을 받은 목민관은 당연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민본주의의 위민사상을 실천한 것이다.(이덕홍, 문집, 연보)

4) 실용주의

퇴계의 학문과 사상에 대하여 비판적 담론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거론하는 점은 퇴계의 학문과 사상이 너무 본질론적이어서 사변적(思辨的)이고 관념적(觀念的)인 반면에 학문과 사상의 현실적용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는 실용주의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퇴계의 정치사상 역시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현실주의적 경세론보다는 성리학적 본질론에 바탕하는 정치적 이상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런데 퇴계의 적전 학통을 이어받은 이덕홍은 적어도 이러한 점에서는 스승의 정치적 이상주의를 현실적인 정치적 상황에 적용시키는 예지를 보여줌으로써 진일보(進一步)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왜란이 나던 임진년 4월 28일에 왕세자의 익위사(翼衛司)의 우부술(右副率)에 임명되었는데, 부임 이튿날 왕은 대궐을 떠나서 북상(北上)길에 올랐다. 이덕홍은 뒤늦게 따라갔으나 대가(大駕)에 뒤떨어지게 되자 평구(平丘)까지 갔다가 86세의 늙은 어머니의 안부가 염려되어 방향을 돌리어 고향으로 갔다. 노모가 무사함을 확인하고 다시 대가를 따라가고자 했으나 왜적에 의해 길이 막혀서 기다렸다가 그 해 10월에 관동(關東) 길을 통하여 11월에 평안도 용강산성(龍岡山城)에 도착해서 호종(扈從)할 수 있게 되었다.

이덕홍은 용강산성에 도착하자 왕세자에 소(疏)를 올리어 비록 혼란한 전서 중이라도 마땅히 모중(募衆)하여 적을 물리치는 항전에 임해야 한다는 점과 한편으로는 지치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고(論告)하고 있으며, (이덕홍, 문집, 권2, 소<疏>, 상왕세자서<上王世子書>) 그

다음해 정월에는 왕의 행재소(行在所)에 나아가 왜적을 물리치고 체제를 정돈하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담은 상소를 올렸다.

이덕홍은 행재소(行在疏)에서 어왜(禦倭)와 정서(整序)를 위해서는 첫째 환난을 당한 민심을 위무하여 수습해서 조정을 믿고 따르게 해야하며, 둘째 비록 혼란한 전쟁 중이라도 공과에 따른 상과 벌의 문제에서 엄격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조정이 신망과 권위를 잃지 않고 국민과 군대의 사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셋째로 실제로 왜적과의 전투에 적용해야 하는 전략전술로서의 구체적인 진법(陣法)을 헌책(獻策)하고 있으며, 넷째로 여러 지역에서의 왜적과의 전투현황을 보고하고, 다섯째 해전(海戰)에서 적선박을 파괴하는 구체적 전술을 개진하고 있다. (이덕홍, 문집, 권2, 소, 상행재소<上行在疏>)

이러한 상소문에 담긴 구체적 정책대안의 헌책은 그가 관념적 정치사상의 틀 안에 안존하지 않고, 덕치, 정명, 민본을 중핵으로 하는 성리학의 정치적 이상주의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고자 한 실용주의적 경세론자임을 입증해 준다. 그가 문신(文臣)임에도 불구하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리를 감안하여 해전의 중요성을 제고해서 귀선도(龜船圖)를 헌책하면서 구체적으로 거북선의 설계와 그 제작방법을 제시한 점은 그 좋은 사례가 된다. (이덕홍, 상행재소 배도<拜圖>)

4. 결 어

이덕홍은 퇴계의 문하에서 으뜸으로 친자(親炙)를 입고 심열(心悅)·성복(誠服)한 적전 제자이다. 그런 고로 그의 정치사상은 철두철미하게 스승 퇴계의 그것을 전승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성리학적 정치사상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관념론적 이상주의에서 진일보하여 실용주의적 정치사상의 정향(定向)을 보여준 것은 주목할 점이다. 그는 실제로 병략(兵略), 산학(算學), 역법(曆法)에서도 상당한 경지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역법에 있어서는 스승 퇴계의 지시에 의해 혼천의(渾天義: 璿璣玉衡)를 만들고 육십갑자음양변(六十甲子陰陽辨), 연월일시원회운세설(年月日時元會運世設) 등을 저술했으며, 병략에 있어서는 앞에서 논한 귀선도 이외에 상행재소의 부록으로 진계도(陣械圖), 침수진목전도(沈水眞木箭圖)를 헌책하는 등 실용주의적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던 것이다. (이덕홍, 상행재소, 배도)

이와 같은 이덕홍의 실용주의적 경세론은 퇴계와 퇴계 문하의 정치사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조명되어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가 국가 위급존망지추(國家危急存亡之秋)였던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대가(大駕)의 호종(扈從) 도중 먼저 사가(私家)의 노모의 안위를 걱정하여 뒤늦게 호종에 합류했던 점은 담론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거북선에 관한 구체적 설계도와 제작·활용 방법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거북선이 원래 이순신 장군의 발명품이 아니라 조선조 태종 때부터 이미 있었고 이덕홍도 이것의 활용을 진언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가원, 1977, 103쪽) 이점에 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재 이덕홍의 정치사상은 시종여일하게 스승 퇴계의 본질론적 정치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퇴계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보이듯이 이덕홍의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도 철학이나 문학의 영역에 비하여 경세론으로서의 정치사상에 관한 담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경세론자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퇴계의 학통을 이어 받은 철저한 성리학자였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금장태, 한국유학사의 이해, 서울 민족문화사, 1994.
 김득황, 한국사상사, 서울 남산당, 1958.
 김기현, “주리설의 확립과 도덕적 인간학/퇴계학파”, 한국사상연구회편, 조선유학의 학파들, 서울 예로서원, 1996.
 단국대학교 퇴계기념중앙도서관 편, 퇴계학의 현대적 조명,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87.
 박종홍, 한국사상사논고/유학편, 서울 서문당, 1977.
 박충석,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삼명사, 1982.
 박충석·유근호, 조선조의 정치사상, 서울 평화출판사, 1980.
 부남철, 조선시대 7인의 정치사상, 서울 사계출판사, 1996.
 배중호, 한국유학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8.
 송시열, “간재선생행장”, 간재선생문집, 간재선생문집간행위원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퇴계평전, 대구 경상북도, 1987.
 유정동, 퇴계의 생애와 사상, 서울 박영사, 1974.
 윤사순, 퇴계철학의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83.

- 이가원, "퇴도제자열전(11), <9>간재 이덕홍", 퇴계학보 제13집, 퇴계학연구원, 1977.
- 이덕홍, 간재선생문집 상·하, 간재선생문집간행위원회.
- 이덕홍, "간재집", 한국문집총간 제51권, 민족문화추진회, 1990.
- 이상은, 퇴계의 생애와 학문, 서울 서문당, 1973.
- 이택휘, "한국정치사상사 연구의 방법과 방향", 한국정치학에 있어서의 역사적 접근의 현황과방향, 한국정치외교사학회논문총제8집, 서울 대왕사, 1993.
- 이 황, 도산전서 1. 2. 3. 4.,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이 황, 퇴계집 1. 2.,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8.
- 전두하, 퇴계사상연구, 서울 일지사, 1974.
- 정순목, 퇴계정전, 서울 지식산업사, 1992.
- 퇴계학연구원 편, 퇴계학총서/퇴계학보(1973~1978), 서울 퇴계학연구원.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조선조 정치사상 연구, 한국정치외교 사학회논문총 제4집, 서울 평민사, 1987.